

# 46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다윗

사무엘상 24, 26장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백성이 다윗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황무지의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은 피곤하여 굴 속에 들어가 잠을 잤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사울의 겹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가자 다윗도 굴에서 나와 사울 왕에게 외쳐 말했습니다.

“왕이여!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죽이지 않고 당신의 겹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에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죽이지 않겠나이다.”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성경 암송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17)

그러나 얼마 후 사울은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 중 아비새가 이것을 보고 사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름부으심을 받은 자를 죽이면 죄가 없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게 하시리라.” 하며 사울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져 왔습니다. 사울은 이번에도 다윗이 자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기 목숨을 살려준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고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 후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기뻐하지 않고 깊이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선으로 악을 이겨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선하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 모두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읽고 이어지는 이야기를 생각해 적어 봅시다.

수철이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수철이가 하나님을 믿는다며 짝인 민권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철이를 따돌리고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수철이는 민권리와 사이 좋게 지내고 민권이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미술시간이었습니다.  
민권이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민권이는 선생님께 혼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수철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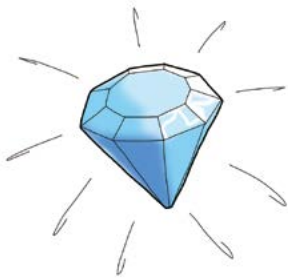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17)

# 예화



## 최고의 행위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아 일하기가 어려워지자 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고 각자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재산 중에 아직 아무에게도 주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단다. 그것은 아주 귀한 다이아몬드란다. 너희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도록 하겠다."

세 아들은 3개월 동안 여행을 하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세 아들은 자신들이 한 좋은 일을 이야기 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이야기한 후 셋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사람과 원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험한 길을 가는데 말이 갑자기 멈추기에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 언덕 가장자리에 잠들어 있었고, 금방이라도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선의 행위란다. 자기의 적을 도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란다. 다이아몬드는 네 것으로 정해야겠다."

부모님난

선생님난